

자녀의 한국 사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그뎨 그랬지



오랜만에 강남에 갈일이 생겨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앱을 통해 확인하니 내가 타야 하는 342번 버스가 2분 후 그리고 7분 후에 도착 예정이다. 2분 후는 너무 촉박하다. 정류장까지 평소 걸어서 5분은 족히 걸리는 거리다. 7분 후 도착하는 버스를 타기로 한다. 혹시 버스가 1-2분 일찍 도착할 수도 있으니 발걸음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본다. 요즘 러닝과 등산으로 다져진 다리가 꽤 믿음직스럽게 움직여준다. 이런, 도착하고 보니 2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 버스가 이제 막 정류장을 출발했다. '조금 더 빨리 뛰어왔으면 이 버스를 뺏을 텐데... 아니다. 너무 서두른 탓이다. 차라리 느긋하게 왔어도 되었을 것을.' 하면서 버스 한 대를 먼저 떠나보냈다. 이렇게 요즘에는 버스나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예측할 수 있다. 정류장으로 향하며 미리 출발 시간을 정하고 걸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른다. 내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요즘 드라마 속에 남녀 주인공이 서로 연락이 안 되어 엇갈리는 장면이 나오면 뭔가 참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만 예전에는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는 상대방이 집에 없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앞에서 마냥 기다리며 발을 뚫뚫 구르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다. 약속 장소를 착각해서 서로 엇갈리거나 하연없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잦았다. 예를 들어 신촌인 줄 알고 나갔더니 신천이었다던가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은 지하에서 기다리고 한 명은 출구 밖 지상에서 기다리는 등... 외출하면 서로 연락이 안 되니 기다리고 엇갈리고 또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

요즘에는 정말 어렵도 없는 일이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쥐고 쉴 새 없이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다 보니 오히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의아하게 느껴진다. 소통 방법은 훨씬 다양하고 손쉬워졌지만 언제부터인가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은 대쪽 줄어들었다. 그리고 보니 요즘 내게 전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최근 하루에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나를 놀라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대선후보 허경영 사무실이었다. 가끔씩 남편이 퇴근길에 전화를 걸고 또 내가 운동 가느라 잠시 집을 비우면 우리집 셋째가 엄마집에 언제 오냐고 전화하고 아, 가끔 전화하는 친구도 있다. 휴대폰에 벨이 울리고 친구의 이름이 뜨면 웬일인가 싶어서 받자마자 내가 "어,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친구는 "아니 뭐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하나? 그냥 해봤지." 하는데 괜히 멧쩍고 미안해진다.

그러게 예전에 나는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통화를 참 많이 했었다. 한 사람과 몇 시간씩 통화해도 지칠 줄 몰랐고 그렇게 자주 오래 통화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집전화기를 끼고 사는 통에 부모님께 여러 번 혼도 났고 전화기도 몇 번 압수되었고 전화요금, 전화카드도 꽤 많은 돈을 지출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전화하길 좋아하던 나인데 요즘은 전화가 걸려오면 깜짝깜짝 놀라니 참 별일이다.

전화를 걸기 전에 문자로 "지금 뭐해? 통화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익숙해져서인가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전화벨이 울리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특히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에 인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아예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 무슨 일인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후 문자로 "부재중 전화가 와있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묻고 대충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후에 다시 연락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나만 이런가 싶었는데 불필요한 대화나 만남 자체를 기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전화로 하던 배달 주문도 앱을 통해서 하고 무인점포가 각광받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한다고 하니 이는 아마도 요즘 추세인 모양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불과 십여 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과 쉽고 편리하게 바로 연결되고 확인하고 예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은 소소한 재미나 작은 서프라이즈들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 요즘에는 모든 급여가 은행으로 딱딱딱 입금되니 돈봉투 품에 안고 퇴근하는 기분을 알 턱이 없고 현금 얼마씩 따로 떼어내고 모으는 잔재미도 경험하기 힘들다.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호출을 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니 친구 몰래 집 앞에 선물을 두고 가기도 어렵고 마음을 담아 손글씨로 꼭꼭 써 내려간 편지에 우표를 붙이고 빨간 우체통에 넣는 기분도 느껴볼 수 없다.

나는 양쪽을 다 경험해본 세대로서 가끔은 과거의 낭만이 그리고 또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가 궁금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점차 내 주위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그럼 나도 나보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라떼는 말이지 그뎨 그랬지....." 하면서 옛날 고리짝 이야기를 펼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연말에 이런 옛날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나이 들고 있는 게 맞긴 맞나 보다. 그나저나 그때 신촌까지 갔다가 신천으로 돌아왔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7일 안에 팔아 드립니다.

현링톤 비치 주상복합 80만불

방 2개 화 2개 1860 sqft
보시면 바로 사랑에 빠지실 매물입니다.
이층 2400-2800불 렌트비/ 아랫층 비즈니스
렌트 또는 주인 비즈니스 식당 웰리 등등 가능

스탠튼 단독 주택 559천

방 3 화 2 1299sqft
이 지역에서 찾기 힘든 가격의 단독 주택

플러튼 단독주택 싱글홈 \$599,999

아직 마켓에 안나온 집
12/20/2021 부터 가능합니다
방 3 화 2 1583sqft
대지 6000sqft

위티어 단독주택 775천 1985년

방 3 화 2.5 1925 sqft 대지 6000천
위티어안에 있는 보석 Cul-de-sac
넓은 주거 공간 오픈 플로어 플랜
너무 예쁜 정원

플라센티아 타운홈 659천

방 4개 화 2.5개 1615sqft
코너 end unit
전체 마루 바닥 넓고 밝은 키친과 리빙룸
공원도 가깝고 생활하기 편리한 단지

플라센티아 2유닛 인컴/단층 699천

유닛 1: 방 3 화 2개
유닛 2: 방 1 화 1
대지 6850sqft 추가 수입이 있는 싱글홈
포텐셜 많은 단층집

렌트/리스

어바인 타운홈 깨끗한 새집
새로 리모델링 한집 방 2 화 2

\$2650

렌트/리스

어바인 벨리 칼리지 옆 타운홈
방 2 화 1개

\$2200

렌트/리스

터스틴 렌트 방 2개 화 3개
학교 좋은 곳

\$2,800

렌트/리스

플러튼 타운홈 방 2 화 2 깨끗한 단지
수영장, 공원, 비치와 로즈크랜 근처

\$2650

렌트/리스

플러튼 방 3 화 3 단독 주택
렌트 좋은 학교

\$3300

렌트/리스

브레아 아주깨끗한 타운홈
2007년생 방 3 화 3

\$3500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참고 리스 전문
다량의 리스팅 있으니 연락 주세요.
본인의 업종에 맞게 새로 셋업 해드립니다.
남가주 어느 지역의 렌트 리스도
내집 찾는 것처럼 찾아 드립니다.
2022년 예쁜 탁상용 달력을 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